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창의력은 어디에 있다(1)

발견과 발명은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발견·발명가들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도 목욕탕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쉽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는 왕으로부터 왕관을 망가뜨리지 말고,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섞였는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매일 밤낮으로 연구해 보았으나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 명상에 잠겼다.

뜨거운 물속에서 명상을 하던 그는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신이 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넘치며 자기의 몸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매번 반복되었던 이 현상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 하찮은 현상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나체인

것도 잊고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인쇄기와 활자를 발명하여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한 구텐베르크도 저녁 식사 중에 낱개의 활자를 칙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의 책은 사람들이 한자 한자를 펜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책 한 권의 값은 굉장히 고가의 것이었다.

그 무렵 구텐베르크는 성직자로부터 성경을 판목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에 착수했다.

그런데 판목이라는 것이 판자에 글자를 조각하여, 그것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인쇄하는 것인데, 판목 한 장이 한 페이지가 되는 셈이라서, 판목의 분량도 실로 엄청났다.

몇 년에 걸쳐 작업하던 그는 어느 날 저녁식사 때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판씩 조각하는 것 이 아닌 한 글자씩 조각하는, 즉, 한 개의 나무에 한 자만을 조각해서 그것을 몇 번이고 사용하는 활자와 이를 이용한 인쇄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발



견과 발명도 결코 연구실이 아닌 목욕탕과 저녁식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미 때로 있다(?)

발명가가 되려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연구하는 습성을 들여야 한다.

발명은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사를 살펴보면 '중간자의 이론'은 침대 위에서 착안한 것이며, 자동직기는 훈들리는 기차 안에서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발명의 소재가 정해지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연구하는 습성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질렛트는 아침에 수염을 깎다가 턱에 상처를 입어 안전 면도기의 발명을 결심했고, 매일 아침 수염깎는 시간을 연구의 시간으로 정하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했다고 한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실 발명이란 것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우연에 기대하는 자세는 버리는 것이 좋다. 에디슨의 말처럼 발명은 99%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더욱 값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편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는 발명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처음 며칠 동안은 미친 듯이 밤낮으로 발명에 몰두하지만 열흘도 못 채우고 열이 식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또



다시 며칠 동안 몰두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발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하는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람에 따라 능률이 오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고로, 선조들은 새벽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

한편 연구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는 항상 필기구를 준비해 놓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즉시 기록해야 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습성을 들이면 1년이면 365개의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그 중에는 분명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있게 마련이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했는데도 실패했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王) **블록9902**